

선어록 해제 33 한국선과 선어록 4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3>

# 한 점 얼룩 없어도 굴에 빠진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합두(合頭)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내가 합두하지 않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무엇이 합두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앞의 말로 알아차려라.”

問 如何是合頭  
師云 是你不合頭  
云 如何是不合頭  
師云 前句辨取

합두(合頭)는 합치하다, 일치하다는 뜻이다. 학승은 부처님 사상과 합치되고 진실과 일치되는 것은 무엇인가 묻는 것이다. 진실은 말할 수 없다. 언어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말로써 진실을 다 표현한다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달리 어떤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 또한 완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내가 합두하지 않는 거야”라는 이 뜻은 선(禪)의 백미(白眉)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밝힌 내용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화상의 정확한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만 뒤, 그만 뒤. 설명할 필요 없어. 나의 법은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려워.”

問 如何是和尚的意  
師云 止止不須說 我法妙難思

선사들의 법은 미묘하다.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선사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사는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만물의 근원과 통하기 때문에 그 미묘한 접화(接化)를 기하 집착하기 힘

## 깨끗함에 빠져도 편협한 삶 더러움에 빠져도 편협한 삶

들다. 선사는 나약한 풀잎 하나를 들고도 천하 대장정을 쓰러트릴 수 있고 말 한 마디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미묘법을 쓰기 때문이다.

혹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같은 선사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원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이런 말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유치하고 허망되지 않음을 저 선사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맑고 맑아서 한 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굴에 빠지고 말아.”

학승이 말했다.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사람을 그르치고 있는 거야.”

問 澄澄絕點時如何  
師云 墮坑落壑  
云 有什麼過  
師云 你屈著與麼人

불구부정(不垢不淨)은 진리의 척도이다. 이 말에 대한 뜻을 관통하고 있다면 선과 도에 대한 핵심을 이미 꿰뚫은 것이다. 수행자들은 다만 이론뿐만 아니라, 불구부정대로 이 진리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깨끗한 것에 빠져 있으면 그는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다. 혹 더럽다는 개념에 빠져 있어도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다. 게다가 깨끗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사람들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악이 중지되지 않고 흉흉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 수심결

한국의 선사상은 신라 말기부터 그 편린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불교사상이 있었지만 선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수용은 나말·여초 구산선문의 형성과 관련시킬 수가 있다.

이후 고려 중기에 지눌의 등장과 함께 이전의 선법을 이어 그 바탕에서 한국적인 선사상 전개와 더불어 선사상을 수록한 어록 내지 저술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점에서 보조의 어록은 한국의 선법에서 한국적인 선사상의 맹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선사상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한국에서 저술되고 전승된 어록 내지 저술에 대해 한국의 본격적인 선전(禪典)으로는 최초이면서 널리 알려진 <보조전서>의 가치를 있다.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은 호가 목우자(牧牛子)이고 시호는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이다. 고려 제18대 의종황제 12년(1158)에 출생했다. 어려서 구산선문 가운데 시굴산문에 속하는 종휘(宗暉) 선사에게 출가했다. 25세 때 보제 선사(普濟禪師)에서 시행된 승과에 급제했다. 그 후에 당시의 불교계가 명리와 출세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서 스스로 몇 명과 결사를 맺어 불조혜명(佛祖慧命)의 길을 지향하기로 맹세했다. 이후 <단경(壇經)> <신화경론(新華嚴經論)> <서장(書狀)> 등을 통해 세 차례의 개집을 터득했다. 이후 조계산 길

상사를 중심으로 크게 법화를 떨치다가 1210년 53세에 입적했다.

보조지눌은 우리나라의 선문에서는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로도 유명하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만 해도 <권수정혜결산문> <수심결> <진심직설>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법집법행특결요법입사기> <엄불인유경> <화엄론절요> <계초심학인문> 등이 전한다. 이 가운데 <수심결(修心訣)>은 ‘목우자수심결’이라는 제목으로서 지눌의 선법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저술이다. <수심결>은 ‘수심론’의 성격으로서 수행납자가 부처를 추구하는데 있어 자신의 마음[心]에 근거해야 할 점에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한 내용이다. 그 마음이란 본래적이고 주체적인 마음으로 설정돼 있다. 전체 내용은 모두 아홉 단락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총론적인 설명으로서 마음에 바탕해야 하는 근거로서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본래부터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구비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 마음 내지 불성에 대한 깊은 신해를 통할 것을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문답으로 설명해 나간다.

첫째 문답에서는 불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불성의 의미와 견별성은 곧 자기의 주재자인 마음과

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문답에서는 신통변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 입도의 인연으로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의미로서 답변한다. 특히 돈오와 점수에 대해 모든 성인이 의지한 수행방식으로서 각각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돈오한 이후에 점수할 것을 말해 돈오와 점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접근한다. 셋째 문답에서는 마음을 밖에서 찾지 말 것에 대해 말한다. 그 방식으로 돈오한 이후에 점수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다. 돈오점수의 수증론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넷째의 문답에서는 자신에게 구비된 영지심(靈知心)에 대해 자각할 것을 설명한다. 다섯째 문답에서는 중하근기 사람이 행해야 하는 수행방식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법이 공적영지심이 곧 자신의 본래면목임을 자각할 것을 말한다. 여섯째 문답에서는 공적영지심의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그것이 곧 중생의 각성(覺性)임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그것이야말로 성인과 중생이 다르지 않는 이유임을 말한다. 일곱째 문답은 다시 돈오점수의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설명한다. 돈오한 이후에 점수해야 하는 이유로서 오랜 습기를 타파해야 할 것을 설명한다. 여덟째 문답은 선정과 지혜 곧 수행과 깨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곧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본체에 즉한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는 선정을 벗어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기 때문에 선정은 지혜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단경>의 정혜일체(定慧一體)의 입장에서 설명을 가한다. 아홉째 문답은 자성정혜문과 수상정혜문인 결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돈오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증의 방식임을 말한다. 곧 수상정혜문은 깨치기 이전의 중하근기가 닦는 수행방식으로서 의혹을 단제하고 고요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 자성정혜문은 돈오의 수행방식으로서 자성을 터득하여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눌은 특히 간화선법을 수용해 나름대로 간화선의 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돈오점수의 사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선수행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업적이기도 하다. 곧 수행의 과정을 돈오한 이후의 점수로 정립했다. 또한 지눌은 <수심결>과 더불어 <정혜결사문> 및 <법집법행특결요법입사기> 등을 통한 성격증지문(性證等持門), <화엄론절요>를 통한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간화결의론>을 통한 간화결절문(看話語截門) 등 삼종문의 수행체계를 완성하기도 했다.

## 한국 선서 최다 저술한 보조지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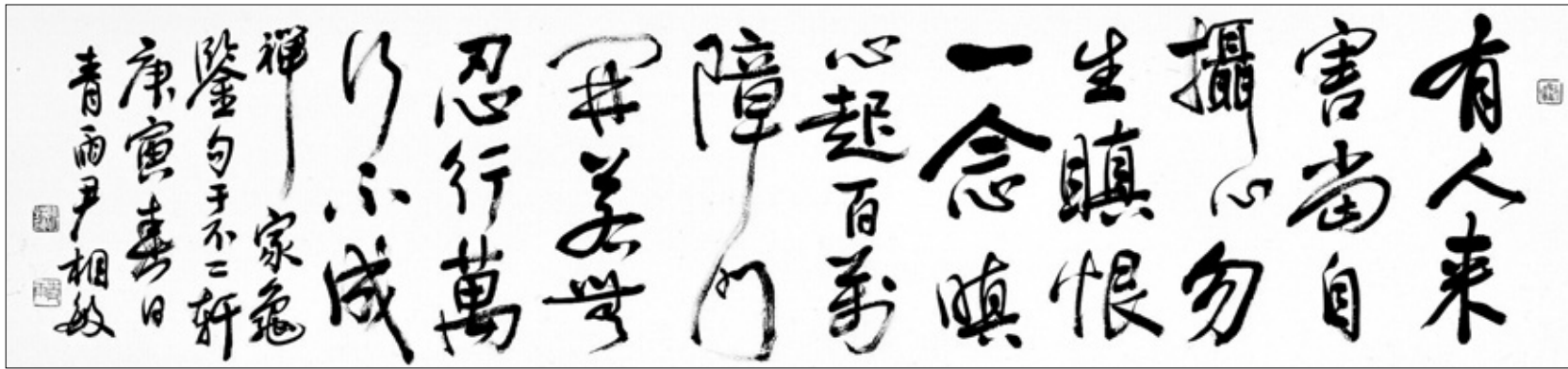
## 간화선법과 돈오점수가 사상의 핵심

에 선정은 지혜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단경>의 정혜일체(定慧一體)의 입장에서 설명을 가한다. 아홉째 문답은 자성정혜문과 수상정혜문인 결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돈오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증의 방식임을 말한다. 곧 수상정혜문은 깨치기 이전의 중하근기가 닦는 수행방식으로서 의혹을 단제하고 고요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 자성정혜문은 돈오의 수행방식으로서 자성을 터득하여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눌은 특히 간화선법을 수용해 나름대로 간화선의 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돈오점수의 사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선수행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업적이기도 하다. 곧 수행의 과정을 돈오한 이후의 점수로 정립했다. 또한 지눌은 <수심결>과 더불어 <정혜결사문> 및 <법집법행특결요법입사기> 등을 통한 성격증지문(性證等持門), <화엄론절요>를 통한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간화결의론>을 통한 간화결절문(看話語截門) 등 삼종문의 수행체계를 완성하기도 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운상민의 서화산책②



청경감선행인개장심일생섭해유  
우인구가불행악로기념진심담인  
운출우귀성만무 백진한물차례  
상일불이  
만

## 禪家龜鑑 句(선가귀감 구)

有人來客 當自攝心 勿生瞋恨 一念瞋心起 百萬障門開 若無忍行 萬行不成(유인래해 당사섭심 물생진한 일념진심기 백만장문개 약무인행 만행불성)

어떤 사람이 해를 입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 생각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장애가 생기게 된다. 참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수행도 이뤄지지 않는다.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임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아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을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

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려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로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뜬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같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